

#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제 4 호

JOURNAL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WANGJU



EXPAN XIAN



- 중국주요 뉴스
- 총영사관 소식
- 중국 경제무역 정보
- 중국 스페셜
- 중한교류
- 중국의 매력
- 중국비자 Q&A
- 특집 : 2011시안세계원예EXPO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2011년 3월 편역·발행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중국 주요 뉴스



2010년 12월 3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향후 경제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미래에 과학적인 발전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경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2.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 화폐 정책 실시 3. 경제구조조정 가속화 4.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 5. 에너지 절약 6. 개혁개방 정책 심화 7. 민생 보장과 개선 8. 국제금융위기 대응 9. 안정적이고 쾌속적인 경제발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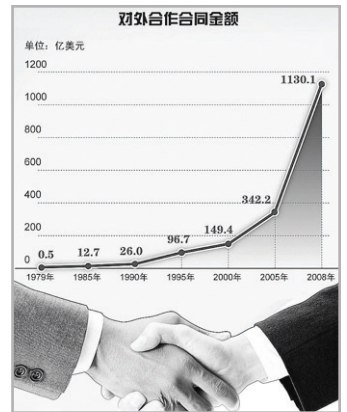


12월 13일 중국국무원은 “산시성(山西省) 국가 자원형 경제 발전방식전환 종합적 개혁 실험구역”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의 9번째 국가급 종합적 개혁실험구역이다. 산시성은 석탄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건국 60년 이래 누계 120억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나라에 큰 공헌을 했지만 현지 자연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파괴, 오염되었다. 산시성은 대담한 모색으로 경제사회발전의 장애를 타파하고 자원형 지역의 지속가능한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12월 3일 11시 28분,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 종합실험 중, 중국산 차세대 고속열차인 “허세호(和諧號)”는 시속 486.1Km/h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허세호” 380A형 차세대 고속열차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이테크 고속열차이며, 최고 운행시속이 380Km/h, 지속 운행시속이 350Km/h에 달한다.



12월 15일 상무부 소식에 따르면, 중국 “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해외투자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5년동안 총 2,200억불에 달하였고, 연평균 30%로 증가하였으며, 해외투자 규모의 순위가 “10차 5개년 계획” 말기 때의 세계 15위에서 5위로 상승하여 해외 투자대국으로 떠올랐다. 타사 소식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한민국 투자는 50% 하락한 반면, 중국 대한민국 투자는 전년대비 159.2%가 증가하였다.



2010년 중국 관광업 총수입이 1.57조 위안이고 동기대비 21.7%가 성장했다. 관광업 3대시장이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쾌속성장을 실현했다. 그 중 국내 관광객수는 21억 명에 달하고 10.6%가 증가했고, 수입은 1.26조 위안으로 23.5%가 증가하였다. 입국 관광객수는 1.34억 명으로 5.8% 증가하였으며, 출국 관광객 수는 5,739만명으로 20.4%가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네번째 관광시장국이자 아시아 첫번째 관광객 수출국이 되었다.



2011년 1월 1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여 국빈방문을 시작하였으며, 도착한 날 밤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만찬에 참석하였다.

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후 주석의 미국 공식방문을 위한 환영식을 가졌으며, 이어 양측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거행하였다. 양국 정상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상호 존중, 호혜 공생의 중·미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달성하였다.

후 주석은 중국은 전략적·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양 국민의 복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미국과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양국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였으며, 미국측은 양국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상호에 대한 존중과 공동 이익을 기초로 양국관계를 한 발 더 발전시키겠다고 표했다. 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발전 성취를 높게 평가하며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미국과 세계에 유익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월 1~2일, 즉 음력 설날 29, 3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허베이성 바오딩시(河北省保定市)로 가서 일반 민중들과 설날을 함께 맞이하였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다베산(大别山) 속의 진자이현(金寨縣)을 찾아가서 농민들의 생활상황을 시찰하고 민중들과 같이 설을 보냈다. 또한 2월3일 음력 설날에 원 총리는 산둥 자상현(嘉祥縣)과 취푸시(曲阜市) 농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였다.



2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양지에즈(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만남을 가졌다. 양 부장은 2008년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후 중·한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은 중·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있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한국과 공동 노력할 것이라 표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근본적 원칙은 한반도와 본 지역의 평화 유지 및 안정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 지역 내 각 국가와 인민들 공동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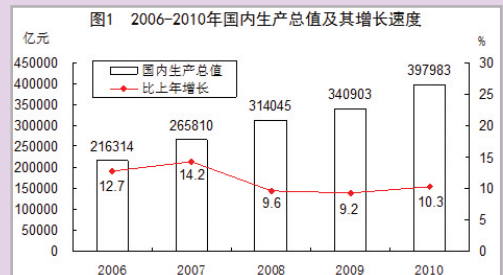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수교 이래 짧은 시간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본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공헌이라 평가했으며, 한·중관계가 2011년에는 더 큰 발전을 이룰거라 믿는다고 표했다. 한국은 중국이 남북대화에 보낸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남북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중국 국민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집트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진 이후, 1월 31일 중국 외교부, 국가여유국, 공안부, 민항국 등으로 이루어진 대응팀은 급히 카이로로 출발했다.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중국정부는 비행기 8대를 보내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한 현지 중국 국민 1,448명을 귀국시켰다. 중국은 이집트에서 자국민 철수 업무를 가장 먼저 시동하였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규모 큰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해외 언론매체는 보도했다.

리비아의 정세가 불안해 진 후,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는 관련 기관이 당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에 전력을 다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중국정부는 민항기 91편과 군용비행기 12편, 화물선 5척과 해군 호위함 1척을 파견하였고, 외국비행기 35편과 외국 선박 11척, 버스 100여 대를 임대하여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해외국민의 조직적인 철수를 펼쳤다. 3월 5일까지 현지 중국 국민 총 35,860명이 전부 철수하였고, 또한 중국은 12개 나라 2,100명 외국인의 철수를 도왔다.



2월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전략적 경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고, 국민경제는 안정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을 유지하였으며, 각 사회적 사업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201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합계 397,983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GDP 총량에 9.5%를 차지하였고 이는 미국 GDP에 40.2%에 달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보다 3.3% 상승하였고, 양식생산량은 54,641만톤에 달했으며 연말 전국 총 인구가 134,100만 명이었다.





# | 증 영 시 관 소 식 |

## 2010년

12월 17일, 중국총영사관과 한중문화협회 광주사회가 공동 주최한 “한·중친선의 밤” 행사가 광주 Holiday Inn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염봉란 주광주중국총영사,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와 송동석 광주사회장, 이용섭 국회의원 및 광주 시청대표, 한중문화협회 고문과 회원, 화교와 중국유학생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12월 24일, 염봉란 총영사는 장휘국 신임 광주시 교육감을 예방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 노창수 교육국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염 총영사는 광주시 교육청과 장 교육감이 총영사관 업무와 광주시 중국어 교육 사업에 보내준 지지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총영사관은 광주시에서 중국어 교육을 보급시키는데 지지와 협조를 보내겠다고 표했다.



## 2011년

1월 17일, 염봉란 총영사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신년 업무회견을 가졌으며, 총영사관은 광주시와 중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정울성국제음악제” 등 행사의 원활한 거행, 중국 관광객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지와 협조를 보낼 것이라 표했다. 강 시장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중국과 R&D특구개발, 무역투자, 인문교류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시킬 것이라 표했다.



1월 20일, 총영사관이 주최한 “2011년 화교 화인 춘절 리셉션”에 광주·전남·전북과 제주의 화교 화인, 중국인 교사와 유학생 및 각계 한국 친구 등 약 200명이 참가했다. 염봉란 총영사는 축사 중 2010년 중국이 각 분야에서 이룬 큰 성과를 소개하였고, 2011년에도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人本이념으로 현지 중국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중국 교사와 유학생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하였다.



2월 7일, 염봉란 총영사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를 만나 중국과 전라북도의 관계 발전 및 도청과 총영사관의 업무협력, 그리고 양측 모두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일 염 총영사는 “새만금 개발과 중국 중소기업 투자가능성 토론회”에도 참석하였다.



2월 11일, 염봉란 총영사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우근민 도지사를 회견하였다. 염총영사는 제주도가 중국에서도 유명하여 작년 중국 관광객이 40만명을 돌파하였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제주도와 중국의 인문교류 및 경제무역 협력을 진일보 확대시키기 위해 제주도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지사는 관광업 인플라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중국 관광객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월 15일, 염봉란 총영사가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위해 신년우호행사를 치렀다. 염총영사는 전남도와 중국 지방정부간의 우호왕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표했으며, 2011년 전남도가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도민 생활수준 향상에 더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본인이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중한우호공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재임기간동안 총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라남도과 중국의 관계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표했다.



2월 16일, 염봉란 총영사가 금호타이어주식회사 광주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역사관과 최신행 자동 생산 라인을 참관하였다. 금호타이어 상무, 기술부 민경용 부장이 모시고 공장의 역사, 현황, 발전 계획 및 회사 중국지사의 경영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 한국 조계종(曹溪宗)과 중국의 법연(法緣)



장신선 주한중국대사와  
사승(慈乘)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은 한국의 최대 불교 종파이고 사찰 2,000여개, 승려 1만 여명, 신도 1,000여만명이 있어, 한국 모든 종교 중 최대의 교세를 자랑한다. 조계종은 종교적으로는 중국의 선종(禪宗)을 전승으로 하여 중국 불교와 인연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선종의 의발(衣鉢 가사와 바라)은 一祖 달마(達摩)부터 二祖 혜가(慧可), 三祖 승찬(僧璨), 四祖 도신(道信), 五祖 홍인(弘忍), 六祖 혜능(慧能) 총 6세까지 전해졌다. 오조 이후 선종은 남종혜능(南宗慧能)과 북종신수(北宗神秀) 두 파로 나뉘어졌으며, 북종은 점차적인 수련을, 남종은 즉각적 깨달음을 주장했다. 중당(中唐) 이후에 남종이 정통이 됐다. 홍인의 의발을 전수받은 육조혜능은 광동 조계산 보림사(曹溪山寶林寺, 현 南華寺)에서 37년 동안 흥법했다. 제자 법해(法海)가 그 법어(法語)를 책으로 편찬하여, 이는 바로 <육조단경(六祖壇經)>이라, 지금껏 선종의 경전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신라 말기에 한국 승려들은 당나라로부터 불법을 구함으로써 중국 선종은 한반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나 영향력 있는 종파가 형성하지는 못했다. 한국 선종 종파의 시조인 도의(道義 753-814년)는 당건중 5년에 중국 강서(江西) 개원사(開元寺)로 찾아가 육조혜능의 제4대 제자 서당(西當) 지장선사(智藏禪師)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법을 배웠다. 도의는 중국에서 37년을 살았고 귀국 후에는 남종을 포교해 한국 선종의 창시자가 됐다. 당나라에서 들어온 禪師들은 역시 각각 종파를 세웠고, 한국 선종은 그 후부터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다. 그 때 당시 9대 종파, 이른바 “구산문선(九山門禪)”이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고려 시대에 이르러 하나로 합병됐다. 9대 종파 중 8개의 시조가 바로 육조 혜능으로 전해 내려온 “홍주선(洪州禪)”을 계승했기 때문에, 합병된 선종은 육조의 도량인 소주 조계산 보림사의 “조계” 두 글자를 따 앞에 붙여 “조계종”이 됐다.

송유억불(崇儒抑佛)을 실시한 조선시대와 일본 식민지시기의 혹독한 시련기를 거치고 한국 조계종은 1962년 12월14일 불교종파로 정식 등록했다. 현재 서울 조계사를 본부로 하고 있고 한국 불교를 다시 융성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된다.

한·중간 불교 교류의 역사는 매우 유구하고 두터운 법연을 맺었으며, 특히 수교 이후에 한국 조계종은 중국불교협회와의 교류는 갈수록 빈번해졌다. 1993년 중국불교협회 자오푸추 거사(趙朴初居士)는 서울에서 열린 “동아종교지도자회의”에 참석하고 조계종의 주요 사찰을 방문하며 조계종 책임자들과 우호적인 교류에 나서기도 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때 송월주(宋月珠) 조계종 총무원장이 방문단을 인솔하고 참석했다.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1997년부터 청년 스님 상호 파견토록 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친분이 더욱 깊어진다. 2005년에 중국 국보인 법문사 불지사리(法門寺佛指舍利) 친견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다. 이를 통하여 한중 불교계 1,600여년의 우호교류사상 가장 중대한 일이었으며 한중 양국 불교계의 유구한 법연과 양 국민 간의 두터운 우정을 볼 수 있다.



육조혜능 육심불



## ◎ 중국경제무역정보 ◎

### ◎ 중국 2011년 사회보장성 주택 1,000만 가구 건설 예정

중국 주택건설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20~30%의 도시민들이 주택수요를 사회보장성 주택으로 충당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5년동안 3,600만 채의 보장성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보장성 주택 보급율이 20%를 실현할 것이며, 올해는 우선 1,000만 가구의 사회보장성 주택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 ◎ 향후 5년 풍력발전 병합 가속화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12차 5개년계획” 기간에 특고전압 전력 수송망을 건설할 것이며, “12차 5개년계획” 말기에 중국 스마트 전력망은 1억 kw의 풍력발전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중국 누적 풍력발전량은 4,000만 kw였지만, 풍력발전의 불안정성 때문에 약 30%의 전력을 병합시키지 못하였다.

### ◎ 중국산 LNG 선박, 해외로부터 수주

1월 15일, 중국선박공업그룹회사 소속 호동중화(沪东中华)사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LNG선박(액화천연가스인 LNG를 영하 163도로 냉각·액화시킨 뒤 저장하여 운반하는 특수 선박) 4척 주문을 받았고, 2015년~2016년에 납품될 것이라 전했다. 이 4대의 주문까지 포함하면 호동중화의 LNG선박 수주 수는 총 10척이 되었다.

### ◎ 2050년 그린 에너지 절반 이상 차지

중국 공정원이 최근 발표한<중국 에너지 중장기 발전전략연구 보고>에 의하면, 2020년까지 중국 원자력 발전량은 7,000만 kw에 이를 것이고, 2030년에는 3억kw, 2050년에는 4억 kw에 달할 것이며, 2050년에는 그린 에너지가 에너지 구성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 2010년 중국 경제성장에 제조업 기여율 49.3%

중국 공업과정보화부의 <2010년중국공업경제운영보고>에 의하면, 2010년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는 전년도에 비해 4.7% 높아졌고 경제 성장 기여율은 49.3%로 전년도보다 9.3%가 상승하였다.

### ◎ 2011년 중국 고속철도는 지속적 쾌속성장

2010년은 중국 고속철도가 쾌속 발전을 이룬 한 해로, 국산 고속 열차 “허세(和諧)호”는 세계철도 운행속도 신기록을 여러 차례 쇄신하였고, 전국 고속철도 운행 길이는 8,358km에 달했으며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7,000억위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고속철도 운행거리리는 1.3만km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 중국의 매력

## | 중국의 법정 휴일 명절 |

### ● 원단(元旦)

양력 1월 1일, 즉 신년이다. “元”은 시작을 의미하고 “旦”은 태양이 지평선으로 부터 솟아 오르는 형태로 하루의 시작을 의미한다. “원단”은 원래 춘절과 같이 음력 1월 1일이었는데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후 손중산(孫中山)이 양력 1월 1일로 고쳤다. 전국 1일 휴일이다.

### ● 춘절(春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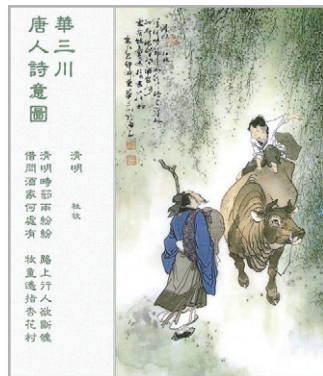


음력 정월 초하룻날, 음력년(陰历年)이라고도 불리며, 민간에는 보통 “과년(过年)”이라 칭한다. 이는 하나의 경사스럽고 즐거운 명절이자 가족 친척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날로, 사람들은 춘절 때에 모두 집에

모여 즐겁게 보낸다. 춘절은 중국민간 가장 크고 성대한 전통 명절로 전국 3일 휴일이다.

### ● 청명절(清明節)

중국 24절기의 하나로 유래되는데 지금 양력 4월 5일 전·후로 지정되었다. 청명절은 중국 8대 전통명절의 하나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청소하는 날이다. 청명절은 답청절(踏青節)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날에 식목, 연날리기, 야유, 그네타기 등 여러가지 풍속이 있었다. 전국 1일 휴일이다.



### ● 노동절(勞動節)

양력 5월 1일 국제노동절.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근로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파업했다. 이 전세계 노동자 계층의 투쟁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이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노동자들의 공동 휴일이 되었다. 전국 1일 휴일이다.

### ● 단오절(端午節)

음력 5월 초닷새이다. 단오절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명절 중 하나이다. 중국 고대 애국 시인 굴원(屈原)은 참언을 당해 유배된 후, 비분한 마음에 먹라강(汨羅江)에 뛰어들어 자진했다. 그 후 백성들은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찻쌀과 밀가루로 만든 여러형태의 떡을 강에 던졌다. 이것이 후에 단오절에 종즈(粽子)와 자가오(炸糕)를 먹고 용주(龍舟)를 경주하는 풍속의 유래가 되었다. 전국 1일 휴일이다.

### ● 중추절(中秋節)

음력 8월 15일 추석이다. 이 날은 가을의 정확히 중간 날로 예로부터 “중추(仲秋)”라 불리었다. 저녁이 되면 보름달은 둥글고 계수나무는 향기로워 예로부터 가족이 모두 한데 모이는 것을 상징으로 여겨 각종 과일과 뜨거운 음식을 먹고 달맞이 해왔다. 중추절에는 또 월병(月餅)을 먹고 토끼 인형을 만들고 즐기는 풍습도 있다. 전국 1일 휴일이다.



### ● 국경절(國慶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기념일이다. 전국 3일 휴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건국되었다.

## 중국스페셜 : 중국 GDP 총량 세계 2위에 대한 분석

2월 14일 일본정부의 통계에 따라 2010년 일본 GDP가 5조 4,742억 달러로, 중국보다 4,044억 달러가 적어 세계 3위로 내려갔다. 그러므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되었다.

GDP(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치이지만 유일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 국력을 평가할 때 GDP만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중국 GDP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중·일간 경제실력 차이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중국경제 총량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뜻일 뿐이다. 중국 1인당 GDP는 아직까지 일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 2010년 1인당 GDP는 4,283 달러였으며 세계 95위로 세계평균기준의 45% 뿐이

다. 연소득 1,300위안(약 23만원)의 빈곤 판단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빈곤인구가 무려 4,000여만 명이며 1.5억명은 하루 소비액이 1달러 미만이다.

경제발전 구성을 보면, 중국경제의 생산 구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력 자원이 제 1, 2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도농간 및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적이다. 2010년 중국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는 0.46이고,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발전도상국의 평균수치보다 높은 것이다.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체계를 보면, 중국 공공복지사업은 아직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하며, 사회보장 임무는 막중하다. 2010년 도시 등기 실업 인구수는 908만명이며 실

업률이 4.1%로 올랐다. 60세 이상 노인은 1.6억명을 돌파하였으며, 총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잘 살기 전에 늙는다(未富先老)”는 말이 이미 사실화되었다.

대외무역을 보면, 중국산 제품은 여전히 저가품 위주로, 수출상품 중 자원과 노동력 적 소비 비중이 매우 크며, 기술과 지식의 함량이 높은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적다.

이상으로 GDP총량이 세계 2위로 떠올랐지만 중국은 여전히 발전도상국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이미 선진국이 다 되어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중국은 발전도상국의 신원에 부합된 해당 국제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 책임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 2011년 시안세계원예박람회 (2011 Xi'an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hibition)



- **공동주최** : 산시성(陕西省) 인민정부, 국가림업국, 중국무역촉진회, 중국화훼협회
- **전시기간** : 2011년 4월 28일 ~ 10월 22일, 총 178일
- **주 제** : “천인장안·창의자연(天人长安·创意自然)-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다. “천인장안”은 도시와 자연의 공생을 의미하고, “창의자연”은 자연을 존중하고 파괴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인류를 위한 자연 활용의 뜻이다.
- **엠블렘** : 시안세계원예박람회 엠블렘은 “장안화(长安花)”로 3·4·5·6각형을 변형시켜 자연의 꽃잎 모양을 조합시킨 “백화인장(百花吉印)”이다. 그 중, 3각형은 한자 “人”과 같아 인본주의를, 4각형은 시안고성벽을 형상화하여 “장안성(长安花)”을, 5각형은 다섯 개의 꽃잎 모양으로 “金木水火土”오행을, 6각형은 눈송이를 형상화하여 “上下東西南北” 육합(六合)과 우주 만물을 상징하고 있다.
- **마스코트** : 시안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이름은 “장안화”로, 시안의 시화인 석류화를 형상화하고 엠블렘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EXPMIAN XI'AN



## ● 전시구역 : 시안 찬바(西安灞灞) 생태구.

여기는 역사상 바상(灞上)으로 불렸던 곳으로, 중국 고대 주요 내륙항구 중 하나였다. 唐현 중 天寶 시기에는 여기서 대규모 수운박람회와 상품교역회를 열었고, 세계박람회의 발단이 되었다. 전시 구역 총 면적은 418ha이고 그 중 수역 면적은 188ha이며, 총 109개의 실의 전람원이 설치된다.

## ● 관람객 예상 인원수

: 약 1,200만명

## ● 전시 내용 소개

: 주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장안탑(长安城), 창의관(创意馆), 자연관과 광운문(广运门)이 있다. 주요 원예 경치는 창안화곡(长安花谷), 오채종남(五彩终南), 실크로드의 꽃비(丝路花雨), 해외경관(海外大观)과 바상무지개(灞上彩虹)이다. 그리고 바상인가(灞上人家), 호숫가 야자 나무(椰风水岸)와 색다른 유럽(欧陆风情) 등 세 곳의 특색 전시구역이 설치된다. 동시에 국내·외 각종 예술품, 조각 및 희귀동물 등도 설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원림, 원예, 건축, 예술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 줄 것이다.



## 西安市 소개



진시황릉 병마용

시안은 산시(陕西)성의 성도(省都)이며, 산시성 정치·경제·문화중심이기도 하다. 총면적이 10,108 km<sup>2</sup>이고 인구는 843.46만명이다.

시안은 옛날에 장안(长安)이라 불리었고, 중국 황하유역 고대문명의 중요한 발원지의 하나이며, 秦·漢·隋·唐 등 13개 왕조가 잇따라 수도를 세운 곳이며, 수도가 된 역사는 1140년에 이른다. 서안은 한·당 시기에 중국 정치·경제·문화와 대외교류의 중심지였고, 당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의 국제적 도시가 되었으며, 유명한 “실크로드”의 기점이기도 했다. 시안 시내 및 주변에는 진시황 병마용, 화청지(華清池), 고대 성벽, 종고루(鐘鼓樓) 등 많은 역사문화 유적지가 있어 “천연적 역사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시안은 관중(關中)평야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서북지역에서 서남·중원·화동과 화북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주축으로, 동서남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전략을 실시한 이래, 시안의 경제발전이 빨라지고 도시 외관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시안 경제는 9년 연속 13%이상의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종합적 실력이 부단히 강해졌다. 2010년 시안시 GDP가 3241.49억위안이었으며,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다. 시안시에는 대학교 49개, 각종 과학기술연구기구 3,000여개, 독립과학연구기구 661개가 있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종합적 과학기술력이 전국에서 앞장서 있다.

시안은 1994년 11월 한국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2007년 9월 20일, 한국 주시안총영사관이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다.



양귀비가 목욕했던 장소인 화청지



중국비자신청 Q & A

**Q. 중국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A. 기본적으로 개인비자와 단체비자로 나뉘어지고, 그 중 개인비자는 L(관광), F(상무/방문), X(유학), Z(취업), U(공무), J(기자), G(경유) 등 종류가 있습니다. 입국 횟수로 1, 2차입국비자 또는 복수비자(M)로 나뉘어집니다.

**Q. 중국비자의 유효기간은?**

A. 중국비자 체류기간(입국 뒤 중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30일, 60일, 90일 및 180일이며, 비자 유효기간(비자 받은 뒤 중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Q. 체류기간이 지나도 상관없나요?**

A. 아니요. 비자 체류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출국해야 됩니다. 중국 외국인출입국관리 법률을 위반하면, 강제퇴거 및 재입국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국비자 급행 신청이 가능해요?**

A. 중국비자는 접수 당일애 찾을 수 없고, 보통 접수 뒤 휴일 제외한 4일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급행 신청시는 급행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접수 다음 날애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자종류는 급행이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미리 문의하고 신청하십시오.

**Q. 친족이 중국에서 사망했으니 긴급하게 중국으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총영사관에서 당일비자 신청하려면,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중국에서 받은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현지 중국정부의 외사관공실(外事辦公室)과 연락하시고 관련 서류 제출 뒤 지정 도시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중국인이면 내가 중국으로 갈 수 있어요?**

A. 중국 국민의 외국 국적 배우자 및 자녀가 최고 체류기간 180일의 친척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중국 국민과의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중국비자 신청하려면 총영사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되나요?**

A. 저희 총영사관이 중국비자를 직접 접수신청하는 종류는 외교·공무·예우·기자 및 홍콩 비자에 한하며, 이외 모든 종류의 비자는 꼭 지정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062-351-8857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우 503-230)  
 중국 비자, 여권, 공인증 문의 : 062) 351-8857  
 영사 면담, 방문 예약 : 062) 385-8874  
 영사 보호 담당 : 062) 385-8873  
 팩 스 번 호 : 062) 385-8880  
 홈페이지 :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총영사관 소식지 홈사이트  
<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kanwu/>

